

[보도자료] 쿠팡, TCL·재로우·스탠리 등 직수입 상품 최대 60% 할인 “와우회원 할인 혜택 확대”

2024. 4. 22.



- 28일까지 쿠팡수입관 ‘빅세일’ 쿠팡이 직수입한 해외 인기 상품 할인 판매
- TCL ‘X 시리즈’ 3종 30일까지 쿠팡 단독 사전예약 판매 최대 100만원 할인

2024. 04. 22. 서울 - 쿠팡이 오는 28일까지 ‘쿠팡수입 가정의달 빅세일’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쿠팡이 직접 수입한 해외 캠핑 및 나들이 용품, 생활가전, 홈인테리어, 주방용품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먼저 22일부터 24일까지 고물가 상황에서 와우회원들이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신선식품, 생활가전, 주방/생활용품 등을 한정수량 파격 할인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카슈골드 고당도 오렌지 (17~23과)를 1만7200원 ▲포트메리온 보타닉가든 중접시를 1만3500원 ▲키체라 간편 프라이팬형 전기 멀티쿠커를 3만900원 ▲다우니 초고농축 에이프릴 프레쉬 섬유유연제 2.63L를 1만 6070원에 판매한다.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가정의달에 선물하기 좋은 상품들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재로우 우먼스 펌 도필러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60캡슐 2만9000원대 ▲스탠리 어드벤처 쿨러 아이스박스 15.1L 5만9000원대 ▲레고 클래식 크리에이티브 조립 가방 2만2천원대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30일까지 글로벌 TV 브랜드 TCL ‘X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도 진행한다. 쿠팡은 2022년부터 TCL TV를 직수입해 선보이고 있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 모델은 TCL 프리미엄 QD-MiniLED TV Max 115인치, TCL 프리미엄 QD-MiniLED TV 98인치, 85인치 총 3종이다.

특히 TCL 프리미엄 QD-MiniLED TV Max 115인치는 MiniLED 라인업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정용 TV로 2만 개의 로컬 디밍 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2024 CES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던 상품으로 오직 쿠팡에서만 단독 사전예약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전예약 고객은 판매가 기준 5%할인 혜택을 받아 정가보다 최대 100만원 저렴한 가격에 TCL X시리즈 TV를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쿠팡의 로켓설치를 통해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무료로 상품을 배송하고 설치에 필요한 사다리차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쿠팡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다양한 제품 구매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TCL TV는 오직 쿠팡에서만 사전예약을 통해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대형 TV와 같은 가전, 식품, 뷰티, 패션 등 폭넓은 카테고리의 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로켓배송하는 ‘쿠팡수입관’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상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과 검사 기준을 통과한 정식 수입 상품으로 쿠팡이 직접 수입 및 통관을 진행한다. 와우회원은 무료 로켓배송과 30일 무료 반품도 가능하다. 쿠팡수입관은 쿠팡 앱 홈 화면에서 ‘쿠팡수입’ 메뉴를 선택하면 접속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